이베로아메리카 제2집(2000년)

16세기 포르투갈 해양여행문학에 관한 연구

김 용 재*

Ⅰ. 서 론

16세기는 인간이 이룩한 업적을 통해 자신의 존재에 대한 인식과 확신을 획득하게된 시기이다. 특히 사회, 경제 그리고 문화의 세계를 확장한 르네상스는 문학, 예술, 과학 등 거의 전 분야에 영향을 끼치며 인간의 한계를 극복하고, '도전할 수 있다'는 새로운 세계관을 갖게 해주었다. 그러나 이러한 세계관의 형성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이 15세기초부터 시작된 포르투갈의 해양발견이라는 사실은 간과되어 왔다. 실제 포르투갈은 '발견의 시대(Época de Descobrimentos)' 또는 '대항해의 시대(Época de Grandes Navegações)'라 지칭되는 15-16 두 세기에 걸쳐 유럽의 정신적, 문화적 그리고 공간적 개방 운동을 선도하며 자신이 속한 유럽세계를 새로운 미지의 세계, 다시 말해 새로운 땅, 새로운 인간, 새로운 문화, 즉 '새로운 세계(Novo Mundo)'와 만나게 함으로써 인류역사의 새로운 지평선을 그었다. 그 결과 인류는 자신이 살고 있던 세계에 대한 진정한 규모, 다시 말해 단순한 지리적 측면에서뿐만 아니라 문화적인 측면에서 새로운 세계를 접하게 됨으로써 막연했거나 환상적이었던 '세계'에 대한 진정한 규모와 그 실체를 알게 되었다. 이렇게 포르투갈을 통해 서로가 알지 못했던 문화의 만남은 과거나 현재뿐만 아니라 미래에 대한 새로운 의식과 세계관을 갖게 만들며 인류역사에 큰 영향

* 부산외국어대학교 포르투갈어과 교수

을 끼치게 되었다.

이러한 의식과 세계관의 형성은 일차적으로 포르투갈인들이 기록을 통해 발견한 새로운 세계를 자신이 속한 유럽세계에 알림으로써 이루어진 것이다. 이 기록들은 발견한 세계에 대한 정보 수집이 목적이었기에 처음에는 사실에 치중한 기록들이 주류를 이루고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 특정한 목적을 전제하였든 그렇지 않았든 거의 모두 보고서의 범주에 속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시간이 흐름에 따라 사실적 기록들에 점차 허구가 가해져가면서 문학으로서의 형태를 갖추어가게 되었고, 그 결과 그들이 다녔던 세계에서 느끼고 수집한 다양한 인간의 경험에 관한 진정한 기록인 '해양여행문학(Literatura de Expansão Ultramarina)'[1] 이란 새로운 장르가 싹이 트게 된다. 포르투갈은 이 해양여행문학을 통해 그 당시까지 감추어져왔던 멀고 막연한 동시에 동경의 대상이었던 신비의 동양을 알렸을 뿐만 아니라, 서로 알지 못했던 다양한 문화가 만나는 계기를 제공하며 새로운 문화지평선을 열었다고 할 수 있다.

오늘날 동양이 서양 또는 서양의 선진제국을 따르려고 노력하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현실이며, 문화 역시 마찬가지이다. 그러나 우리가 수입

---

1) '포르투갈 해양여행문학(Literatura Portuguesa de Expansão Ultramarina)'은 15세기부터 시작하여 16, 17세기까지 포르투갈인들이 주로 동양에서 행한 해양여행을 소재로 한 문학을 일반적으로 지칭한다. 그러나 '해양여행문학'이라는 용어에 대해 현재 어느 정도 논란은 있다. Teófilo Braga, F. Figueiredo, H. Cidade, J. P. Coelho, A. J. Saraiva, O. Lopes, A. M. Machado 등과 같이 이 시기의 문학에 대해 연구를 해왔던 많은 학자들은 이 당시의 작품을 대부분 '발견시대의 문학(Literatura dos Descobrimentos) 또는 '여행문학(Literatura de Viagens)'이라고 분류하고 있다. 객관적인 현실을 반영하고 있기에 이 용어는 적절하다고 할 수 있으나 작품에 드러난 다양한 현실과 관심을 적합하게 표현하고 있다고는 할 수 없다. 실제 이 당시 포르투갈이 해양진출을 하면서 했던 여행의 부산물인 수많은 기록들의 주 소재는 바다에서 겪은 모험이나 해양을 통해 진출하게 된 동양의 풍물, 지리, 전통, 사회, 문화, 종교 등의 다양하고 풍부한 경험이었기에 '포르투갈 해양여행문학(Literatura Portuguesa da Expansão Ultramarina)'이라고 지칭하는 것이 더 옳다고 본다. 이에 대해 자세한 것은 Fernando Cristóvão(coord.), *Condicionantes Culturais da Literatura de Viagens*, Lisboa, Ed. Cosmos, 1999, pp. 13-37 참조.

하고, 따르려는 서양 문화의 많은 부분이 동양의 영향을 받았다는 것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본 연구는 '발견의 시대'를 열어 진정한 동·서의 만남을 가져온 포르투갈인들의 업적에 대한 생생한 기록인 해양여행문학을 통해 우리를 재인식하고, 점차 늘어나고 있는 동서양의 문화비교 연구에 기여하며, 또한 향후 유사한 연구의 촉발을 위한 기폭제가 되었으면 한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우선 해양여행문학이란 문학장르가 발생하게 된 배경을 시작으로, 이후 해양여행문학의 유형과 특징을 분석하여 향후 이루어질 수 있는 본격적인 해양여행문학 연구를 위한 제언을 하고자 한다.

Ⅱ. 포르투갈 해양여행문학의 배경

해양여행문학을 논하기에 앞서 우선 해양여행문학이란 새로운 장르가 포르투갈 문학에서 탄생하게된 배경, 즉 포르투갈 해양진출의 동기와 목적을 거론해야 할 필요가 있다. 15세기 유럽은 중세에서 근대로 넘어가는 이행기에 전개된 르네상스로 인해 새로운 것과 미지의 세계에 대한 인간의 호기심이 충만하였고, 모험정신 또한 팽배하였으며, 인간의 능력에 대한 자신감으로 넘쳐있었다. 또한 아랍세계와의 교역을 통해 간헐적이고 불확실한 정보를 가지고 있었던 미지의 세계인 동양에 대한 강한 호기심을 표출하기 시작했다. 특히 그리스·로마시대부터 전해 내려온 신비로운 중국의 부(富)가 Marco Polo의 『동방견문록』을 통해 알려지게 되면서 서양인들의 동양에 대한 관심은 더욱 더 커졌다.

이러한 동양에 대한 매력은 르네상스시기의 유럽인들이 진실을 좇아 자신이 속한 세계에서 떠나가도록 하는 데 충분하였으며, 포르투갈은 진실 추구의 선구자로서 '발견의 시대'를 선도하며 일찍이 해양진출을 시도하였다. 실제 포르투갈인들은 Álvaro Machado가 "포르투갈에서 발견

의 역사는 명백한 정치적, 경제적 이유 외에도 서구인들에게 이상한 것에 대한 인본주의적 호기심의 실제적인 결과이다."[2] 라고 지적하고 있듯 이러한 르네상스 유럽의 선구자로서 15세기초부터 빈약한 정보에 의지한 채 새로운 세계를 발견하기 위해 이베리아반도를 떠나며 해양진출이라는 대장정을 시작하게 된다.[3]

그러나 그 누구도 단지 호기심만으로 포르투갈의 해양진출이 이루어졌다고 생각하지 않을 것이다. 포르투갈이 해양진출을 하게 된 데는 다양한 이유와 목적이 결합되어있다. 먼저 전통적 해양국가로서 일찍부터 바다에서의 모험을 즐기려는 의지를 지니고 있던 포르투갈인들에게 있어 해양진출은 무엇보다 이베리아 반도에서 회교도인들에 대항하여 싸우던 십자군 전쟁의 연장으로 여겨졌었다. 이와 더불어 상인계급은 동양산물의 교역을 통한 부의 축적을 원하였고, 선교사들은 이교도의 땅에 기독교를 전파하고자 했었으며, 일부 사회계급은 이 해양진출을 통해 신분상승을 추구하는 등 포르투갈의 해양진출은 역사, 사회, 경제, 종교, 정치 등 다양하고 복합적인 성격의 시대상황과 이해와 연결되어 있다. 그러나 이중에서 가장 중요한 포르투갈의 해양 진출 동기로는 C. R. Boxer가 "1. 회교도인들에 대한 십자군의 열정; 2. 사제 요한(Preste

2) Álvaro M. Machado, *O Mito do Oriente na Literatura Portuguesa*, Lisboa, ICALP, 1983, p. 23.

3) 실질적으로 1498년 이전의 포르투갈에서 동양은 거의 알려진 것이 없는, 거의 도달할 수 없는 세계로 여겨지고 있었다. 단지 일부 지식인층사이에서 Marco Polo의 글이나 John de Mandeville과 같은 편찬자(compilador)가 수집한 글이 필사본으로 전해지고 있었고, 이러한 글을 접할 수 있는 소수의 독자들 역시 동양에 대해 그 실체가 불분명한 정보를 접할 수 있을 뿐이었다. 특히 중세의 과학적 암흑시대의 영향으로 인해 이 시대 포르투갈인들이 가지고 있던 지리적 지식은 비유럽권에 비해 많은 오류가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소수만이 접근할 수 있던 이러한 중세의 정보는 너무나 환상적인, 그리고 막연하고 부정확한 동양의 이미지만 전달할 뿐이었다. 동양에 대해 확실하고 유일한 증거는 단지 유럽에 유입된 여러 동양의 산물, 예를 들어 후추, 계피, 비단, 도자기 등과 같은 산물이며, 이 역시 멀고도 지루한 실크로드를 통해 엄청난 가격과 소량으로 도착할 뿐이었다. 그러나 이러한 부정확한 동양은 포르투갈이 1498년 인도항로를 발견함으로써 점차 그 실체가 드러나게 된다.

João)의 문제 3. 기네의 금을 소유하고픈 욕망; 4. 동양의 향료추구"[4]라고 들고 있듯이 종교와 경제적 요인을 꼽을 수 있다. 다시 말해 종교적 목적은 포르투갈의 해양진출에 있어 중요한 이념 사상적 기반이며 경제적 목적은 해양진출의 실제적인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데,[5] 이는 당시 포르투갈이 처하고 있던 이베리아 반도의 상황과 연결되어 있다.

포르투갈은 당시 유럽의 다른 국가들보다 일찍 정치적 안정을 이룩하며 국내 체제를 정비하였다.[6] 그 결과 영토확장을 통한 국가발전을 꾀하려 했지만 스페인이라는 장애물로 인해 유럽진출이 여의치 않자 대서양으로 눈을 돌리게 된다. 특히 새로운 항로를 개척하여 지중해 도시 국가들이 장악하고 있는 동방무역을 통한 경제적 이익의 추구는 포르투갈이 해양진출을 시작하게 된 결정적인 이유라고 볼 수 있다. 당시 베니스, 제노바 등 지중해의 도시 국가들은 아랍인을 통해 비단, 도자기, 향료 등 다양한 동방산물의 독점적인 교역을 통해 막대한 이윤을 얻고있었다. 이러한 이탈리아 도시 국가들을 제치고 동양무역의 상권을 잡기 위한 유일한 길은 직접 동양제국으로 통하는 길, 즉 지중해를 통하지 않고 대서양을 통한 새로운 항로를 발견하는 길뿐이었다. 더구나 이러한 포르투갈의 계획은 종교적으로 적대관계에 있던 아랍인들에 대한 십자군 전쟁의 연장이었기에 해양진출은 여러 면에 있어서 포르투갈에 유익한 것이었다.

포르투갈이 해양진출을 통해 경제적 이익 외에 십자군 전쟁의 계승이라는 사명을 수행하려고 한 데는 무엇보다도 포르투갈의 건국이 이베리

---

4) C .R .Boxer., *O Império Colonial Português(1415-1825)*, Lisboa, Edições 70, 1981, p. 41.

5) 인도 발견시 Vasco da Gama 선단의 한 선원이 말한 "향료와 기독교인을 찾으러 왔다(Viemos buscar a especiaria e o cristão)."라는 표현은 이를 가장 잘 요약해 주고 있다고 볼 수 있다.

6) 15세기까지도 유럽의 대부분의 국가들은 내부적 진통을 겪고 있었으나 포르투갈은 1143년 건국한 이후 1297년에는 자국내의 아랍인들을 완전히 축출하고 인접국인 Castela와 평화협정을 체결함으로써 정치적, 사회적 안정을 일찍 이루었다.

아 반도에서 이교도인 아랍인들을 추방하고자 하는 서십자군 전쟁과 특별한 관계를 맺고 있다는 데 있다.[7] 1143년 건국 후에도 포르투갈은 종교적으로 적대관계에 있던 아랍인들에 대한 십자군 전쟁을 계속 전개하여 1249년 남부 Algarve지역에서 아랍인들을 추방하여 현재의 영토를 획득하게 된다. 그러나 포르투갈을 제외한 다른 이베리아 반도 지역에서는 이슬람교도들이 완전히 추방되지도 않았을 뿐 더러, 추방당한 이슬람교도의 위협은 계속되었기에, 포르투갈은 '사제 요한(Preste João)'이 에티오피아를 기독교로 교화하여 다스리고 있다는 불확실한 정보를 바탕으로 기독교화된 에티오피아와 동맹을 맺어 이슬람제국과 대항하고자 하였다.[8] 이와 더불어 포르투갈인들은 전통적으로 하나님이 자신들에게 부여한 소명, 즉 기독교 전파라는 소명 의식을 일찍부터 지니고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16세기 포르투갈의 해양진출은 실질적인 영토확장, 경제적 이윤 획득 그리고 십자군 전쟁의 계승뿐만 아니라 미신과 이교의 죄악 속에 살고 있는 이민족을 개종시킴으로써 기독교인의 수를 증가시켜 기독교 왕국을 확장하라는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선교(Evagenlização)라는 사명의 수행인 것이었다. 당시 동양을 향해 리스본 항구를 떠났던 수많은 선단에는 신부가 꼭 승선했다는 사실은 이를 증명해주고 있듯이 이 '기독교 전파'라는 목적은 포르투갈의 해양진출에 있어 중요한 이념적, 사상적 기반을 이루고 있다.

그러나 포르투갈이 해양진출을 결정하게 된 데는 이러한 '십자군의 사명'이나 이미 언급한 바 있는 영토확장과 경제적 이익 외에 포르투갈이

---

7) 북아프리카의 아랍인들은 7세기 중엽 이베리아 반도를 침공하여 일부 북부 산악지역을 제외한 전 영토를 점령하게 되고, 기존의 기독교 왕국은 '영토 회복전쟁(Reconquista)'을 벌이게 된다. 이후 기독교도와 이슬람교도는 이베리아 반도의 지배를 놓고 수 세기동안 격렬한 전쟁을 시작하게 되는 데 포르투갈에서의 회복운동은 8세기부터 13세기 중엽까지 계속되었으며, 이 영토회복 전쟁에 참가하게 된 프랑스 왕족인 D. Afonso에 의해 1096년 포르투갈 왕국의 전신인 포르투칼렌스 백작령(Condado Portucalense)이 형성되게 된다.

8) Raffaella D'Intino, *Enformação das Cousas da China*, Lisboa, IN-CM, 1989, p. XIX.

자리잡고 있는 이베리아 반도가 역사적, 지리적으로 '발견의 시대'를 선도할 필연적인 당위성에도 기인한다. 포르투갈은 지리적으로 이베리아반도의 서남단 맨 끝에 위치하여 육로나 해로로 아프리카와 대서양을 연결해 주는 고리와도 같은 훌륭한 조건을 갖추고 있었을 뿐 아니라, 긴 해안선과 천연적으로 잘 발달된 항구를 가지고 있어 해상활동에 필요한 최상의 조건을 갖추고 있었다. 또한 기원전부터 지중해에서 활동했던 페니키아, 카르타고 등 해양전통이 강한 민족의 영향을 받아 일찍부터 항해술이 발달하여 해양 지향적 성격을 지니고 있었다. 이러한 여러 조건을 바탕으로 포르투갈은 15세기 초 이미 북아프리카까지 진출하며 향료의 주산지인 인도항로 개척이란 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대한 정보를 수집할 수 있었다. 그러나 연근해가 아닌 먼 대양으로 진출하는 본격적인 해양진출을 할 수 있게 된 것은 까라벨라(Caravela)[9]라는 당시로서는 최첨단의 기술력이 동원된 범선의 개발이다. 포르투갈은 당시에 가능한 모든 조선기술을 동원하여 기존의 유럽 선박들과는 다른 까라벨라와, 이 까라벨라를 기반으로 대양에서의 거친 항해조건에 더 잘 적응하며, 긴 항해에 필요한 대규모의 물자 수송과 많은 선원이 승선 가능한 나우(Nau)라는 대범선을 개발하였다. 이로 인해 기술적으로 해류나 해풍과 상관없이 거친 대양을 항해할 수 있는 조건을 갖추게 됨으로써 본격적인 포르투갈의 해양진출이 시작되었다. 그 결과 포르투갈인들은 15세기 초부터 아프리카해안을 조금씩 개척해 나가며 동양에 점차 접근해 갔으며, 마침내 1498년 Vasco da Gama 선단이 인도에 도착함으로써 신비로운 동양 세계의 문을 연 최초의 유럽인으로서 인류역사의 새로운 장을

9) 당시 유럽의 선박들은 규모가 작았기 때문에 대양을 항해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였다. 그러나 포르투갈은 기존의 항해기술과 축적되어 있던 북아프리카 해안 항해경험을 바탕으로 해류의 변화에도 문제없이 항해할 수 있는 까라벨라를 개발함으로써 대양을 항해할 수 있었다. 쾌속범선이라 불리는 이 까라벨라는 대양의 각 방향에서 불어오는 바람을 자유 자재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한 삼각 혹은 사각 돛을 단 선박으로서 매우 조종하기 쉬울 뿐 아니라 배로 역풍을 거슬러 항해할 수 있어 조선술의 획기적인 진보로 기록되고 있다.

열게 된 것이다.

Vasco da Gama의 인도 여행 후 20년이 지나지 않아 포르투갈은 홍해, 고아, 말라카 해협, 마카오 등 아시아에서 전략적으로 중요한 지역을 거점으로 확보하며 본격적인 아시아 진출을 하게된다.[10] 인도의 캘커타 도착 이후 포르투갈은 동방교역에 있어 전략적인 중요성을 지니고 있는 지역을 정복하는 정책을 세워, 먼저 홍해에서의 항해를 감시하기 위해 홍해 입구에 위치한 Socotorá 섬에 요새를 설립한다. 그리고 1507년에 페르시아만의 항해와 교역을 지원하기 위해 Ormuz, 1510년에는 인도의 Goa를 정복하고, 이 Goa를 포르투갈의 '동양제국(Império do Oriente)'의 수도로 결정한다. 이후 1511년에 인도양과 태평양간의 항해 및 교역 중심 도시인 말레이 반도의 Malaca를 정복함으로써 포르투갈은 아랍인들이 지니고 있던 기존의 교역망을 탈취하며 점점 전 아시아로 세력을 확장해간다. 그 결과 포르투갈은 인도는 물론 동남아, 중국, 일본 등 전 아시아의 주요 교역중심지와 무역을 시작하며 당시 아랍인들이 독점하고 있던 동양-서양간의 교역을 주도할 뿐 아니라 동양에 대한 유럽 문명의 전달자, 동시에 유럽에 대한 동양 문명의 전달자 역할을 하면서 고아-말라카-마카오-일본을 연결하는 광대한 아시아 지역을 활동무대로 하는 동양제국을 건설하게 된다.

이렇게 봉건영주 체제의 소국가에서 거대한 해양제국을 건설하며 화려한 황금세기(1549-1580)를 맞게 된 포르투갈은 좀 더 효과적인 교역을 위해 발견한 지역의 역사, 지리, 문화, 정치, 행정, 경제, 종교 등 다양하고 광범위한 분야의 정보를 지속적으로 그리고 체계적으로 수집하기 시작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이러한 동양의 실체에 대한 초보적인 지식은 그 정보의 양과 질에 있어서 괄목할만하게 증대되어 갔다. 특히 해양

10) 거대한 아시아 해안에 대한 포르투갈의 개척이 매우 빨리 이루어 진 데는 포르투갈인들이 현지 항해사들을 고용하여, 동양의 바다를 항해하기 위해 필요한 항해기술을 효과적으로 습득하고, 오래 전에 성립된 기존의 교역망을 큰 문제없이 활용하게 되었기 때문이다.

진출에 참여하였던 군인, 공무원, 선교사들은 넓고 험한 바다에서 온갖 위험에도 불구하고 생명을 내던져 가며 굴하지 않는 강인한 정신으로 자신들이 이룬 업적에 대한 자부심과 함께 새로운 땅에 대한 기록들을 남기기 시작했다. 동양 진출의 초기의 기록들은 단순한 호기심이 담긴 일기나 여행기, 항해일지, 기독교 전파를 위한 순례기나 서한문, 왕실에 보내는 보고서 등 자신이 여행을 한 사실이나 사건을 중심으로 다양한 풍물을 단순히 소개하는 글이 대부분이었다. 비록 일부 기록에는 여행객들의 감상이나 느낌이 재미있게 표현되기도 하였지만 대부분은 정보를 전달하려는 원칙 하에 객관적이고도 사실적인 성격을 지니고 있다. 그러나 해양진출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져 감에 따라 이 기록들에 점차 허구가 가해져가면서 문학으로서의 형태를 갖추어가게 되었고 그 결과 새로운 문학장르인 '포르투갈 해양여행문학(Literatura Portuguesa de Expansão Ultramarina)'이 싹트게 된 것이다.

포르투갈 해양여행문학은 해양여행을 통해 머나먼 동양에서 발견한 새로운 사실, 동양인들의 상이한 문화, 풍습이 다른 포르투갈인과 동양인과의 관계 등 취급하는 주제가 매우 광범위할 뿐 아니라 상세한 여행일정, 화려한 풍경과 인종묘사 또는 다양한 화자 등다양하고 풍부한 형식과 내용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이 텍스트들은 무엇보다도 효율적인 동양진출을 하기 위해 필요한 성격의 자료를 수집하고 있기 때문에 일차적으로 실용적인 성격을 지니고 있다. 특히 많은 텍스트들이 자신들이 방문한 지역의 사물이나 풍물에 대한 개인적인 느낌이나 감상에 불과한 기록으로서 흥미롭고 문헌적으로 가치는 있으나 새로운 것을 알리려는 정보를 주목적으로 하고 있기에 일반적인 문학의 개념에 상이하다고 볼 수 있다. 실제 해양여행문학은 단순한 여행기로부터 전문적인 지식이 동반된 의학, 지리, 역사서에 이르기까지 해양진출에 참여했던 군인, 선교사, 상인, 학자, 모험가 등 각각의 임무나 경험, 또는 능력과 교육 정도에 따라 그 성격이 매우 다양하기에 종종 무엇이 문학이고 무엇이 문학이 아닌지를 구분하는 경계를 세우기가 매우 어려울 정도이다. 그러나 "여

행문학은 넓은 의미에 있어 일정한 기간에 특정한 지역에서 실제적이던 가상적인 여행에 관해 쓴 글을 총체적으로 의미"[11]하기에 우리는 이러한 성격의 모든 글을 여행문학으로 간주한다. 특히 포르투갈 해양여행문학의 경우에서 이 여행이라는 공간적 이동은 - 동양을 향해 그리고 동양을 통해 - 글을 쓰기 위한 핑계나 영감의 동기로서 이들에게 작용하고 있고, 또한 많은 해양여행 문학작품이 문장기술의 작법이 형식화되어 있다는 약점에도 불구하고 개별적인 체험의 다양성을 느끼게 한다. 이러한 점에서 공적이든 사적이든 동양으로 여행을 한다는 것은 새로운 세계, 즉 이국 풍물을 경험하는 것으로, 이를 바탕으로 한 개인적 체험의 문학적 형상화는 포르투갈 문학에 있어 소재 공간의 지평확산뿐만 아니라 여행문학이라는 새로운 장르의 발전에 큰 기여를 했기에 우리는 해양진출과 관련된 모든 글을 '해양여행문학'으로 간주하고, 동양과 관련된 해양여행문학의 유형과 특징을 분류하고자 한다.

Ⅲ. 포르투갈 해양여행문학의 유형과 특징

1. 해양여행문학의 유형

동양과 관련된 포르투갈인들의 가장 오래된 기록은 당연히 인도항로를 발견한 Vasco da Gama 선단에 참여한 항해사 Álvaro Velho가 1499년에 쓴 『인도여행기(A Relação de Viagem)』[12]이다. 이후 동양을 향해 출발한 선단이 늘어감에 따라 포르투갈에 전해지는 정보의 양은 홍수처

11) J. D. Pinto Correia, "Introdução" in *Peregrinação,* Lisboa, Ed. Comunicação, 1979, p. 16.

12) Álvaro Velho의 『인도여행기』는 동양에 대해 유럽인이 쓴 가장 오래된 중요한 기록의 하나로 인도에 대한 최초의 인류학적(etnograficos) 정보뿐만 아니라, 말라바르 지역에서 말하는 말라이어의 용어, 또는 물품, 칫수 및 무게단위, 관세 등 이전에는 접해볼 수 없던 새로운 정보를 담고 있다.

럼 커졌다. 그러나 동양과 관련된 기록들은 포르투갈이 동양에서 입지를 완전히 구축한 16세기 중반에 들어서야 본격적으로 출판되기 시작한다.[13] 특히 이러한 정보가 널리 알려지게 된 데는 1542년부터 동양에서 활발한 선교활동을 벌이며 수많은 기록을 남긴 예수회 신부들의 역할이 지대했다. 일찍부터 예수회 책임자들은 포르투갈의 위대한 항해로 인해 유럽에 열려진 새로운 세계에 대한 선교에 있어서 예수회가 맡고 있는 전략적 역할에 대해 인식하고 있었다. 그래서 예수회에서는 동양에 진출한 신부들에게 육상이나 해상으로 한 순례나 기독교 포교 활동과 관련하여 보고서나 서신을 정기적으로 제출하도록 하였으며, 정보를 독점하려 했던 포르투갈 왕실과는 달리 유럽의 호기심을 충족시키고 동시에 성공적인 예수회의 선교 활동과 결과를 알리기 위해 파견한 신부들의 편지를 체계적으로 출판했다.[14] 이후 예수회 신부들의 서신모음집의 출판은 본격적으로 시작되어 17세기까지 지속적으로 이어진다. 이를 계기로 종교 외의 역사, 예술, 지리, 인류학 등 여러 분야의 기록들 역시 출판되기 시작하며 동양과 관련된 다양한 정보가 국내외로 알려지게 된다. 포르투갈인들이 이렇게 동양에서 활동하며 2세기 동안 남긴 기록들은 당시의 동양을 총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문헌적 가치를

---

13) 1550년 이전에는 Marco Polo의 『동방견문록(O Livro de Marco Polo, 1502년)』과 에티오피아에 관한 글만이 출판되었으며, 그 이외의 동양과 관계된 기록들은 필사본으로만 전해지고 있었다. 그 결과 정보의 확산이 제한적이어서 동양발견에 대한 충격이 그리 크지 않았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출판되어 대중에 알려지지 못한 이유로는 여러 가지를 들 수 있다. 그 중 가장 중요한 이유로는 새로운 세계의 발견에 따른 이익을 독점하기 위한 포르투갈 왕실의 비밀 정책과 더불어 Luís F. Barreto가 *Os Descobrimentos e a Ordem do Saber pp. 9-54*에서 지적하고 있듯 16세기 전반기의 문화 상황에 있어 세칭 '발견의 문화(Cultura dos Descobrimentos)'의 중요성이 시대적 상황으로 인해 당시 사회에서 제대로 인식되지 않았다 점을 들 수 있다.

14) 최초의 예수회 신부 서신 모음집인 *Copia de vna carta, que escriuio de la India el padre. M. Gaspar de la compñia de Iesus a los hermanos del collegio de Iesus de Coymbra; recebida el año de. M. D. L. tresladado de Portugues en Castellano*는 Coimbra에서 1550년에 출판되었다고 알려지고 있다.

지니고 있다.[15] 또한 문헌적 가치를 띤 중요한 사료의 보고일 뿐 아니라 여행의 목적과 성격에 따라 그 내용과 형식이 매우 다양하여 '해양여행문학'이라는 새로운 장르로 발전하게 된다.[16] 실제 포르투갈의 해양진출과 관련된 업적과 이들이 이룩했던 거대한 제국의 건설은 포르투갈 문학에 깊은 영향을 끼쳤고 그 자취는 현재에도 쉽게 찾아 볼 수 있다.[17] 특히 예수회 신부들이 남긴 보고서나 서신은 수준 높은 교육을 바탕으로 여행문학과 관련된 동양의 해상과 육지에서 이들이 겪은 경험을 상세히 서술하고 있기에 문헌적인 가치 외에 문학적으로 높이 평가받고

15) 예를 들어, 역사적인 면에 있어서 포르투갈인들은 동양의 여러 민족사에 대한 기록을 남기고 있는 첫 번째 유럽인으로, 이들은 구두의 증언뿐만 아니라 글로 쓰여진 기록을 참조하고 있다. 또한 지리적인 면에서 매우 정확히 지명이나 강, 산, 숲과 같은 동양의 지리를 묘사함으로써 자신들이 직접 경험하거나 책을 통해 간접적으로 접한 정보를 구체적으로 제공하고 있으며, 예술적인 면에서도 산과 강과 같은 자연이나 탑, 도시 등과 같은 당시의 동양의 문화를 자세히 상술하고 있다. 또한 인류학적인 면에서 동양 민족의 관습과 풍습, 민간의료, 의복, 종교축제 장식, 도구, 신화, 결혼, 장례 등에 대해 매우 자세히 서술하고 있어 동양 세계에 대한 구체적이면서도 종합적인 정보를 담고 있다.

16) 동양 여행은 개인의 입장에서는 이국 풍물을 새로이 접하게 되는 여행이었다. 국가의 공적인 업무 수행이나 사적인 부의 축적이라는 본래의 목적에다가 개인적인 체험 세계를 확대하고 다른 세계에 대해서 새로이 느낄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기록으로 남긴 이러한 체험은 포르투갈의 해양진출과 관련된 부분을 이해하는데도 도움이 되겠으나, 이국에 대한 개인적 감동을 엿볼 수 있는 좋은 문학적 자료도 될 수가 있는 것이다. 특히 그때까지 경험하지 못한 이국적 정취로 인하여 당시의 독자들에게 새롭고도 경이로운 흥미를 불러일으켰는데 이러한 소재상의 특이함으로 인해 쉽게 독자를 확보할 수 있었다. 16세기에 출판된 해양여행문학 작품 목록은 José Manuel Garcia, *Ao Encontro dos Descobrimentos*, Lisboa, Presença, 1994, pp. 234-43 참조.

17) 기사소설보다는 더 파란만장한 여행의 모험과 새로운 공간, 경치, 식물, 동물, 습관, 종교의 발견은 광범위한 서사문학에 영감을 주었다. Sá de Miranda, Gil Vicente, Luís de Camões, Fernão Mendes Pinto 등 해양진출이 활발히 이루어지던 시기의 작가들뿐만 아니라 Almeida Garrett, Cesário Verde, Fernando Pessoa, Miguel Torga, Sophia M. B. Andresen, António L. Antunes, José Saramago 등 포르투갈의 근현대문학을 대표하는 작가들도 해양진출 또는 바다와 관련한 포르투갈 민족에 대해 직간접적으로, 때로는 심층있게 때로는 단순한 모티브로 다루고 있다. *O Eco dos Descobrimentos na Literatura Portuguesa*, Lisboa, Ed. Replicação, 1990. 참조.

있으며, 본격적인 해양여행문학의 토대를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이미 지적하였듯이 포르투갈 해양여행 문학은 일반적으로 해양진출과 관련된 모든 분야에서 이루어진 글을 그 대상으로 하고 있기에 매우 방대할 뿐만 아니라, 서로 상이하거나 일치되며 중복되는 성격을 지니고 있기에 그 유형을 분류하기가 쉽지 않다. 일단 두 가지 요인을 염두에 두고 간단한 분류를 하고자 한다. 그 첫 번째 요인은 해양여행문학은 어떠한 체계화를 쉽게 할 수 없는 다양한 성격의 텍스트에 적용되고 있다는 점이고, 두 번째 요인으로는 지금까지 알려진 여러 형태의 텍스트 중에서, 많은 텍스트들이 그 내용이나 형식에 있어 다양한 형식의 문체가 혼재되어 상호 교차되거나 중복되고 있다는 점이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까지도 그 분류를 하기가 쉽지 않지만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향후 동양과 관련된 포르투갈 해양여행문학 연구의 시발점으로 일단 취급하고 있는 내용에 따른 주제와 텍스트의 문체에 따른 두 카테고리로 분류하고자 한다.[18]

1) 주제별 분류

해양여행문학은 우선 내용에 따른 주제별로 분류할 수 있다. 크게 3가지로 분류할 수 있는데 첫째, 신발견지의 풍물을 다룬 서신이나 보고서, 둘째, 바다에서의 모험이나 항해기술과 관련된 글, 그리고 마지막으로 동양의 역사, 지리, 전설 등을 소재로 한 작품으로 나눌 수 있다. 먼저, 신발견지의 풍물을 다룬 서신이나 보고서들은 귀족, 공무원, 군인 등과 같이 포르투갈 왕실을 위해 일했던 사람들, 또는 선교를 위해 파견된 신부들이 동양에서의 관련활동과 관련하여 규칙적으로 작성한 편지나 업무 보고서를 의미한다. 그중 'Cartas de Serviço'라 지칭되고 있는 왕실

18) 현재까지 아시아, 아프리카, 아메리카 같은 여행의 목적지, 선교사, 상인, 선원, 군인, 공무원, 단순한 여행객 등과 같은 여행의 주체, 또는 기술적 측면, 또는 여행객들의 국적, 또는 해양진출, 해상비극, 바다와 같은 주제별로 분류하고 있다. F. Cristóvão, Op. cit., P. 37.

보고서나 편지는 일반적으로 해양진출에서 국가를 위해 봉사했던 사람들이 연금 수혜나 신분상승과 같은 왕실의 은혜를 요청하기 위한 의도로 작성된 것이다. 대부분 동양에 대한 직접적인 경험과 관찰을 바탕으로 객관적인 사실을 기록하고 있으며, 일반적으로 보고서 형식의 문장으로 되어있어 문학적인 체취는 옅은 편이다. 그러나 여행이라는 시·공간적 이동이 소재가 된 Cartas de Serviço에는 자신들이 이룩한 공적을 기록하면서도 동양에서 직접 겪은 자전적 경험이 어느 정도 허구성을 띄며 상술되고 있어 여행문학이라는 장르에 충분히 포함시킬 수 있다고 본다. 그 중 가장 대표적인 작품은 인도 식민지(Estado da Índia) 건설, 말라카 정복 등과 같은 동양제국의 건설에 따른 여러 활동을 상세히 보고하고 있는 Afonso de Albuquerque[19]의 『서신(Cartas para El-Rei)』을 들 수 있다.

이러한 왕실 보고서와 함께 중요한 것으로는 선교사들이 남긴 기록을 들 수 있는데, 대체로 종교적 목적으로 새로운 세계를 향해 떠났던 신부, 특히 예수회 신부들에 의해 작성되었다. 이들은 기독교 전파를 위해 동양을 돌아다니며 그들이 보고, 듣고 겪었던 새로운 풍물을 소개하며, 자신들의 목적에 필요한 여러 정보를 담은 보고서나 서한문과 같은 형식의 글을 남겼다. 이러한 신부들의 글들은 일반적으로 포르투갈인과 동양 세계에 대한 만남에 대한 상세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 외에도 인도 항로의 선박에 승선한 경험, 또는 동양에 도착해서 겪은 경험, 특히 육상이나 해상으로 한 순례에 대한 증거를 생생하게 보여주고 있기에 현재까지도 매우 흥미롭다. 특히 선교사들의 글에는 '기독교 전파'라는 이데올로기를 쉽게 찾아 볼 수 있어 이들에게 있어 "여행은 공간적 이동에 대한 단순한 기록을 넘어선 이념적 내용을 제시하는 동기"[20]가 되고 있다.

---

19) Afonso de Albuquerque는 1509년에서 1515년까지 인도의 governador로 활동하며 동양진출에 있어 가장 전략적인 지역을 점령하며 포르투갈 동양제국의 초석을 세웠다.

20) Mária L. Lepecki, *Autran Dourado*, São Paulo, Guíron/MEC, 1976, p. 117.

또한 그 내용과 형식에 있어 다른 기록들과는 달리 인본주의 교육의 자취[21]가 물씬 풍겨나는 뛰어난 문학성을 띠고 있기 때문에 그 어느 분야의 텍스트보다 여행문학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전체적으로 동양에 파견된 신부들의 기록들은 여행 중 부딪치게 되는 예상치 않은 상황에 대해 직접적이고 사실적으로 명확하게 표현하고 있지만, 일부는 메타포어를 통해 비유적인 표현을 하거나 이국주의를 통해 동양의 신비를 더 한층 다채롭게 표현함으로써 문학텍스트를 연상시켜 준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의 보고서는 단순한 정보자료라기보다는 진실에 대한 진정한 소설로, 역사서에서 문학작품으로 승화되었기에 중요한 역사적 가치를 띄고 있는 문헌인 동시에 문학적으로도 그 가치가 높게 평가되고 있다.

첫 번째 분류의 주요 작품으로는 Pe. Francisco Álvares 의 『사제 쥬앙의 전설에 관한 진실(Verdadeira Informação do Preste João das Índias)』, Fr. Gaspar da Cruz의 『중국과 오르무즈의 풍물에 대한 보고서(Tratado das Cousas da China e de Ormuz)』, Pe. Álvaro Semedo의 『대 중국 제국 (Relação da Grande Monarquia da China)』, Pe. Manuel Godinho의 『1663년에 행한 아라비아와 시리아의 여행기(Relação do Novo Caminho através da Arábia e da Síria que fez em 1633』 등을 들 수 있다.

두 번째는 바다와 항해와 관련된 글로, 동양의 여러 지역에 진출해 있던 포르투갈인들은 새로운 항로를 개척하기 위해 필요한 Roteiros, Guias Náuticas, Livros de Armada, Relatos de Viagem 등과 같은 주로 실질적인 성격의 기록들을 들 수 있다. 이 기록들은 대부분 문학성이 결여된 단순한 기술적, 또는 사실적 기록이지만 그 중 일부는 절제된 형

21) 동양으로 파견된 신부들은 전반적으로 학식과 문재를 겸한 학자가 많았다. 그 주요 이유로는 효율적인 기독교 선교를 위해 파견국가에 유럽 문화의 우수성을 드러내기 위한 것도 있지만, 또한 현지 사정을 기록하여 보고하기 위한 것을 들 수 있다.

식과 뛰어난 내용으로 인해 문학 텍스트로 간주하기에 부족함이 없다. 예를 들어 D. João de Castro의 『여정기(Roteiros)』[22]는 지리, 기후와 같은 항해에 필요한 자연조건이나 단순한 항해 일지가 아니라 자신이 직접 만난 동양세계에 대한 문화인류학적인 관찰을 담고 있다. 특히 현대문학의 주요 쟁점의 하나인 상호텍스트성(Intertextualidade)을 만나볼 수 있는데, Hernani Cidade가 "여행을 통해, 관찰하면서 논의해가고 있다"[23]라고 지적하듯이 『Roteiros』에서 D. João de Castro는 동시대 유럽에 알려진 지식과 자신이 직접 체험한 경험을 대조하거나, 과거의 유명한 고전 작가들이 남긴 기록들을 자신의 직접 경험을 바탕으로 수정하는 등 텍스트를 통한 활발한 지적인 대화를 하며 당시로서는 보기 힘든 새로운 문학적 시도를 하고 있다.

그러나 『Roteiros』를 제외한 대부분의 기록들은 실용성을 바탕으로 작성된 기록들로서 문학적인 가치를 부여 할 수가 없다. 다만 해상에서 겪은 개인적 경험, 특히 난파와 관련된 글은 항해와 관련된 다른 텍스트와는 달리 문학텍스트로 평가할 수 있다. 당시 인도항로는 태풍과 같은 자연적인 재앙 외에 지나친 인간의 탐욕으로 인해 화물량이나 항해일정을 무시하며 안전을 고려하지 않은 무모한 항해로 인해 수많은 해상사고로 점철되어 있었다. 당연히 이렇게 해상에서 겪은 비극이 기록으로 남겨졌는데, 이국적인 풍물과 더불어 소재 자체가 흥미진진할 뿐 아니라 비극의 주인공들이 겪는 예측불허의 어려움과 불행 등 극적인 요소를 갖추고 있으며, 일정한 형식을 갖춘 공식문서의 성격을 띤 다른 해양기록들과는 달리 기록자의 개성과 세계관에 따라 자유스럽게 쓰여 진 것이기에 문학텍스트로 간주하기에 부족함이 없다.

이 중 가장 대표적인 것으로 『해상비극 이야기(Histórias Trágico-Marítimas)』를 들 수 있다. 비록 난파나 표류 같은 불행한 사건을 있는

22) *Roteiros de D. J. de Castro*, Lisboa, A. F. Costa, 1939-40.
23) Hernani Cidade, *A Literatura Portuguesa e A Expansão Ultramarina*, Vol. 2. Coimbra, Arménio Amado, Editor, 1964, p. 392..

그대로 충실하게 쓴 글이 그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지만, 갑작스럽게 배가 침몰하거나 예기치 않은 상황으로 표류를 하게 되는 순간의 처절함, 표류과정에서 겪은 바다와의 투쟁, 이로 인해 삶과 죽음의 기로에서 서게되는 인간의 극한 상황에서의 심리상태, 또는 인적이 없는 낯설고 황량한 지역을 끝없이 걸어가야 하는 여정에서 생존자들이 겪게되는 고통의 순간과 타인과의 갈등 등과 같이 자신들이 직접 겪은 체험을 가식 없이 솔직하게 그리고 있다. 특히 바다라는 자연과의 투쟁과 고난 극복의 과정을 리얼하게 묘사해놓고 있어 일찍부터 작가들과 일반독자들의 관심을 불러일으키며 필사본이나 출판되며 널리 알려졌다. 그 결과 다른 로망스어 국가들과 달리 포르투갈에서 매우 인기를 얻게되는 새로운 문학 장르로 자리를 잡으며 현재까지도 많은 독자들에게 많은 감동을 주고 있다.[24] 이중 1555년 리스본에서 출판된 것으로 추정되는 Manuel de Sousa de Sepúlveda 선장 이야기는 가족의 비참한 운명에 대해 너무나 생생하게 묘사되어 있어 큰 주목을 받았다.[25]

이러한 해상비극 이야기는 대부분 익명이나 거의 알려지지 않은 사람들에 의해 남겨졌지만, Jerónimo Corte Real, Diogo do Couto 같은 16세기 포르투갈의 주요 작가들 역시 해상비극과 관련된 작품을 남겼으며, 일부 예수회 신부들의 글 역시 해상비극이야기와 서로 교차하는 경우가 매우 많다.[26] 해상비극 이야기의 특징으로는 여행은 화자에게 있어 글을

24) 난파에 대한 가장 오래된 기록의 출판은 *Historia da muy notavel perda do galeão Sam Ioão*으로, 출판 날짜와 인쇄소에 대한 기록이 없다.

25) 희망봉 근처의 아프리카 해안에서 난파를 당해 내륙의 흑인들과 교역을 하고 있는 강으로 가는 과정에서 가족이 겪는 고통과 슬픔에 관한 Sepúlveda 선장 가족의 이야기는 포르투갈로 귀환을 하기위해 기근과 피곤, 도처에서 만나게 되는 미개인들과 야수들과의 싸움을 겪으면서 가지게 되는 고통 등 실제 일어난 사건에 대한 기록이라기보다는 화자가 의도적으로 독자의 감정을 자극하는 에피소드를 강조하고 있어 하나의 문학작품으로 평가받기에 부족함이 없는 모든 요소를 다 갖추고 있다.

26) Giulia Lanciani가 1979년 발표한 해상비극 이야기에 관한 연구서인 *Relatos de Naufrágios na Literatura Portuguesa dos Séculos XVI e XVII*에 의하면 문학적 가치에 비해 아직도 그 연구가 매우 부족하다.

위한 주요한 핑계로 나타나며, 무엇보다 해상에서의 모험과 인간의 드라마와 밀접하게 관련되어있다. 또한 그 담론은 직접 겪은 불행에 대한 자세한 묘사 외에 포르투갈의 해양진출과 관련된 여러 문제에 대해 비판적 입장을 취하는 핑계로 사용되고 있다.[27]

주제별 분류의 마지막으로 동양의 역사, 지리, 전설 등을 주제로 한 작품들을 들 수 있다. 대부분 포르투갈이 동양에 진출한 후 좀 더 효율적인 교역이나 선교를 하기 위해 초기의 초보적인 정보 수집차원을 넘어 각 분야 전문인들이 동양의 역사나 풍물에 관해 체계적이고도 심도 깊은 지식을 남긴 기록들로서 동양에 관한 글 중 가장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포르투갈의 해양 진출사를 그린 João de Barros의 『十券史(Décadas)』, 인도의 전설과 설화를 모아 쓴 Gaspar Correia의 『인도의 전설(Lendas da Índia)』, F. Castanheda의 『포르투갈인들에 의한 인도의 발견과 정복사(História da Conquista e Descobrimentos da Índia pelos Portugueses)』, Fr. Luís Fróis의 『일본사(História do Japão)』등을 이 분류의 대표적인 작품으로 꼽을 수 있다. 이러한 기록들은 아시아 여러 민족의 역사, 풍속, 문물, 예술, 종교의식, 정치제도 등과 같은 인류학적인 정보를 담고 있는 데, 비록 서양인의 시각이란 프리즘을 통한 실체이지만 우리가 잘 알지 못하는 과거의 동양의 실정이 자세히 소개되어 있으며 문학적 형상화도 뛰어나 해양여행문학을 더욱 풍부하게 만들었다고 할 수 있다.

간단하나마 포르투갈의 해양여행문학을 크게 3가지 주제로 분류를 해보았다. 그러나 해양여행문학은 여러 권의 역사서나 지리서부터 몇 장 되지 않는 단문의 서신이나 보고서, 또는 항해일지부터 해상비극이야기

27) 당시 모든 포르투갈 국민이 해양진출에 대해 호의적인 입장은 아니었다. 비록 대부분의 여론은 호의적이었지만, 일부 사회계층에서는 비판적 입장을 취하고 있었다. 그 대표적인 예로 포르투갈 최고 시인이라 여겨지고 있는 Luís de Camões나 Fernão Mendes Pinto를 들 수 있다. 김용재, 포르투갈 문학사, 부산외대출판부, 1996. 참조.

까지 해양진출과 관련된 모든 분야의 글을 그 대상으로 하고 있어 매우 방대할 뿐만 아니라, 내용과 형식에 있어 서로 중복되거나 일치되는 성격을 지니고 있기에 주제에 따른 분류만 가지고는 해양여행문학이 내재하고 있는 다양성을 모두 아우르고 있다고 볼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는 앞에서 행한 해양여행문학의 내용에 따른 주제별 분류와 더불어 해양여행문학의 형식, 즉 문체상의 분류를 해야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2) 문체상의 분류

해양여행문학의 형식이라고 볼 수 있는 문체의 분류 역시 주제별 분류와 마찬가지로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첫째, 문체상의 분류에 있어 가장 중요하고 방대한 분야로 '새로운 세계(Novos Mundos)' 속에서의 사건이나 여정, 풍물 등을 묘사·서술하고 있는 글로서 묘사문(Descrições)이라고 지칭할 수 있다. 여기에는 대부분 육상이나 해로로 행한 여행경로, 여행 도중 겪은 사건이나 지나간 지방의 묘사가 담겨져 있는 Informações, Tratados, Relações, Livros, Jornadas뿐만 아니라 일부 Roteiros와 여정이 상세히 기록된 Diários도 포함된다.

두 번째로는 서한문(Epistolografia)을 들 수 있다. 전통적으로 포르투갈 문학에서 일찍부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서한문은 다른 문학 장르와는 달리 그 내용에 있어 다양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28] 예를 들어 서한문은 동양의 경제, 행정, 종교, 풍습 등에 대한 공식적인 보고서일 수도 있고, 개인적인 감상을 담은 일기나 여정을 소개하고 있는 여행기록일 수도 있다. 이러한 다양한 형식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세계의 다양한 현실을 보여주고 있기에 상당히 풍부한 문학 장르의 하나로 여겨지고 있다. 비록 현재까지도 당시에 쓰여졌던 수많은 서한문이 출판되

28) 현재까지 서한문에 대한 본격적인 연구서로는 Andrée Rocha의 *A Epistolografia em Portugal*을 들 수 있다.

고 있지 않지만, 보고서나 여행기 등과 같은 다른 분야와 비교해 볼 때 상대적으로 많이 출판되었다고 할 수 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예수회 신부들이 남긴 편지로서 그 중요성에 있어 높이 평가해야되나 아직까지도 연구가 부족한 실정이다.

마지막으로 이론서나 과학기술서적을 들 수 있다. 말 그대로 항해와 관련되어 기술적인 문제를 다룬 글뿐 만 아니라, 동양진출을 하면서 효율적인 통치나 교역을 위해 현지의 의학, 동식물학 등과 같이 실용성을 지닌 과학분야와 관련된 글이 이 분류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그 특성상 대부분 문학적으로 평가하기에는 어렵다.

3) 유형

지금까지 해양여행문학을 크게 세 가지의 주제와 문체로 분류해 보았다. 그러나 서로 중복되거나 상이한 성격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그 유형을 좀 더 자세히 분류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첫 번째 분류의 기준인 묘사문에서 '묘사'라는 명칭이 매우 광범위하고 애매모호하기에, 이 분류에는 다양한 성격, 가끔은 아주 상이한 성격의 문체들까지 포함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앞에서 행한 주제와 문체별 분류를 바탕으로 좀더 엄밀하고 상세하게 분류함으로써 포르투갈 해양여행문학의 유형(Tipologia)을 나눌 필요가 있다고 본다. 해양여행문학은 다음과 같은 8개의 유형으로 나눌 수 있다.

① 서간문(Epistolografia) - 이미 언급했듯이 공무원, 군인, 선교사들에 의해 쓰여진 서신들이 이 유형에 포함된다. 일반적으로 포르투갈이 해양진출을 하여 이룩한 제국의 여러 분야의 즉각적인 요구에 부응하는 실용적인 성격을 지니고 있으나, 새로운 문화나 민족과의 만남, 이에 따른 여러 사실, 특히 동양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담고 있으며 그 성격상 발견한 상황을 묘사하거나 자전적 경험을 담고 있어 묘사문이나 전기와 같은 다른 성격의 글들과 연결되어 있다. 대표적인 작가로는 수많은 예

수회 신부들과 더불어 Afonso de Albuquerque, D. João de Castro, Fernão Mendes Pinto 등을 들 수 있다.

② 여행일지(Relações de Viagem) - 여정을 따라 새로운 세계의 발견을 기록하고 있는 글로 여행 목적과 저자의 신분에 따라 다양한 내용과 형식을 보여주고 있다. 특히 출발에서 귀국할 때까지의 견문과 경험이 두루 포함되어 있으며 여행노정, 발견한 새로운 사실 등 구체적으로 그 내용을 기록한 기사체의 글도 있고, 개인적 술회를 서사적으로 표현한 것도 있다. 이 유형의 대표적인 작가로는 이미 언급한 바 있는 Álvaro Velho 외에 Tomé Lopes, Pêro Lopes de Sousa, D. João de Castro, António Tenereiro. Fr. Gaspar de São Bernardo, Sebastião Manrique 등을 들 수 있다.

③ Tratados Geográficos e Etnográficos - 새로이 발견한 지역에 대한 정보나 사람들에 대한 기록으로 당시 유럽인들이 가졌던 세계에 대한 지식을 변화시켜 새로운 세계관을 갖게 해주고 있는 글로서 Tomé Pires, Duarte Barbosa, Fr. Gaspar da Cruz, Pêro de Magalhães Gândavo, Pe. Luís Fróis 등을 대표적인 작가로 들 수 있다.

④ Crónicas Gerais - 연대기나 전기, 전투상황, 난파, 선단관계 등 역사적 성격을 띤 다양한 형태의 글이다. 연대기는 인간의 기억을 위해 보존해야 할 필요성을 지닌 모든 것에 대한 기록을 위한 글로서, 실용적 성격을 지니고 있어 발견이나 특정 지역, 지배에 대한 글도 있지만 영토 확장을 배경으로 중요한 인물들에 대한 글도 있다. 대부분 정치, 군사 또는 종교적 팽창의 요약으로 포르투갈인들의 업적에 대한 서술이 주를 이루고 있다. 해양여행 문학 중 가장 잘 정리된 유형으로 그 모델은 중세에 시작된 역사기술서(Historiografia)라고 할 수 있다. 대표적인 작가로는 Fernão Lopes de Castanheda, João de Barros, Damião de Góis, Gaspar Correia 등을 들 수 있다.

⑤ Tratados Técnicos - 항해술, 선박 건조, 동·식물학 등과 같은 특정 기술이나 과학분야의 새로운 지식을 담고 있는 기록으로 해양진출을

하는 데 있어 실제적으로 가장 필요한 성격의 글이다. 이 유형에는 항해 책자, 선원들의 일기, 무기, 선박건조에 대한 기술서적, 군사 항해기술, 지도 등이 포함된다. 그러나 이러한 문헌들의 대부분은 그 문학적 가치는 매우 희소하다고 볼 수 있다. 왜냐하면 항해에 필요한 실용적인 성격을 지니고 있어 문학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다고 볼 수 없기 때문이다. 다만 기술적 문체가 아닌 일반적인 문체를 사용하고 있는 Diários de Bordo와 Roteiros 등과 같은 항해 일지를 문학적으로 평가 할 수 있지만, 일부 항해일지는 여행일정과 여행 중 겪은 사건에 대한 개인적 체험을 서술하고 있기에 이 유형에 포함하기가 어려운 점도 있다. 대표적인 작가로는 Garica de Orta, Cristóvão da Costa, Pe. Fernando Oliveira 등을 들 수 있다.

⑥ Relatos de Actualidade - 특별한 사건, 특히 Diu, Goa, Malaca를 점령할 때 포르투갈 선단이 벌인 공성(攻城)과 같은 전투행위를 기록한 글들로 대부분 짧은 보고서 형식을 지니고 있으며 아직까지 연구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⑦ Biografias - 저명한 인물의 일대기, 예를 들어 Afonso de Albuquerque, Pe. Francisco Xavier, D. Luís de Ataíde 등 포르투갈의 동양진출에 있어서 정치, 종교적으로 주도적인 역할을 한 인물에 대한 전기들로 이루어져 있다.

⑧ Memórias Vivenciais e Doutrinais - 자신의 경험이나 교훈적 의미를 담은 복합적인 글로 동양의 풍물과 풍속, 전통, 문화, 자연, 제도 등이 개인적 견해와 어우러져 있다. 특히 주목할 점으로는 동양에 진출한 포르투갈을 조명하며 유럽과 동양을 대조 또는 비교하고 있는 다양한 시각이 두드러지게 나타난다는 것이다. Fernão Mendes Pinto, Diogo do Couto, Francisco Rodrigues da Silveira 등을 대표적인 작가로 꼽을 수 있는데, Pinto가 남긴 『편력기(Peregrinação)』는 포르투갈 해양여행문학의 백미로 꼽힐 정도로 우수한 작품이다.

이렇게 16세기 포르투갈의 해양여행문학을 주제나 문체에 따라 분류

를 하고 이를 바탕으로 그 유형을 나누어보았다. 그러나 해양여행문학은 여러 권의 역사 또는 지리서부터 몇 장 되지 않는 단문의 보고서, 또는 항해일지부터 여행기록까지 여러 형태를 띄고 있을 뿐 아니라 일부 출판된 글을 제외하고는 거의 대부분의 글들이 필사본으로 남겨져 있다. 또한 수많은 기록들이 상당부분 소실되었거나 스페인, 이태리어로 번역되어 여러 곳에 흩어져 있기에 당시에 나온 모든 글을 다 조사하여 분류하기가 현재 매우 어려운 실정이다. 더구나 이미 지적했듯이 포르투갈 해양여행 문학은 해양진출과 관련된 모든 분야의 글을 그 대상으로 하고 있어 매우 방대할 뿐만 아니라, 서로 상이하거나 일치되며 중복되는 성격을 지니고 있기에 그 유형을 분류하기가 쉽지 않다. 본고에서는 현재까지의 자료를 토대로 해양여행문학의 유형을 나름대로 분류하였기에 앞으로 자료가 보완된다면 좀 더 정확한 분류를 할 수 있을 것이다.

2. 해양여행문학의 특징

1) 묘사와 서술

포르투갈인들은 16, 17세기 동양에서 약 200 여년에 걸친 활동기간 중 자신들의 눈으로 본 여러 다양한 민족, 문화, 관습, 종교, 행정제도, 즉 다방면에 걸친 동양인의 삶과 그 존재를 자신들이 본 그대로 기록하여 가능한 한 객관적인 소식과 정보를 유럽에 알리고자 하였다. 특히 마치 사진을 찍는 사진사나 어떤 사건을 정밀하게 취재를 하는 기자처럼 자신들이 여행에서 만나고, 본 모든 것을 매우 자세하게 관찰하며, 이를 세밀하게 기록하려고 노력하고 있어 이들의 기록은 동양이라는 '타인(O Outro)'에 대한 정밀보고서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이다. 이러한 이유로 해양여행문학의 작품에는 정확한 수량에 대한 기록, 상세한 기술적인 정보, 동식물학과 같은 과학용어 등이 매우 상세히 열거되어 있을 뿐 아니라 자신이 처한 상황을 아주 객관적이고도 사실적으로 묘사되고 있다.

실제 많은 글에서 도시의 지리나 거리, 인구와 경제 정보, 종교와 미신 등과 같이 여러 분야에 대한 정보를 자신의 의견을 배제한 채 지루할 정도로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그 이유로는 이미 여러 번 언급했듯이 대부분의 글들이 포르투갈의 효율적인 동양진출을 위한 정치, 경제, 종교, 사회, 문화에 관한 일종의 정보은행으로 보고서의 형식을 띤 여행기록문이 그 주를 이루고 있기 때문이다. 이와 더불어 또 다른 중요한 이유로는 자신들이 서술하고 있는 것을 독자들이, 즉 눈으로 직접 확인해 볼 수 없는 유럽 독자들이 글을 수용하는 데 있어 가질 수 있는 거부감이나 이질감, 또는 불신을 타파하기 위해 기술하고 있는 사실이나 사건에 대해 지나칠 정도로 반복해서 서술하고 있다는 점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기의 포르투갈 해양여행문학에서 무엇보다 우선적으로 만나볼 수 있는 특징은 묘사·서술적 기능이다. 객관적인 정보전달이라는 목적 하에 쓰여진 이러한 글들에서 묘사·서술적 기능은 당연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렇게 대부분의 해양여행문학 작품에서 쉽게 만나 볼 수 있는 묘사나 서술은 사건이나 사실에 대한 단순한 묘사나 서술에 그치지 않고 하나의 문학적 담론으로 발전하고 있다. 실제 대부분의 해양여행문학 작품은 일종의 자서전, 일기, 회고록이 지니고 있는 사실성(Realismo), 객관성(Objectividade), 충실성(Fidelidade)과 같은 특징을 기초로 하여 이루어져 있지만, 이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결코 현실적으로 그런 것뿐만 아니라 단지 그럴 것이라고 생각하거나 판단하는 것도 포함되어 있다. 즉, "실제 경험한 이야기에 충실하려는 우려와 함께 상상의 날개가 펼쳐지게 되는 것이다."[29] 그렇기 때문에 해양여행문학의 대부분의 글들은 개인적으로 실제 겪었던 경험과 기존에 지니고 있는 문헌이나 구두로 전해지는 정보를 바탕으로 마치 자신이 직접 겪은 것처럼 바꾼 객관적 경험이 반영되고 있는 담론이라고 할 수 있다. 다시

29) Hernani Cidade, Op. cit., p. 397.

말해 모든 실제 경험을 바탕으로 한 텍스트가 아니고 항상 화자의 입장에서 정리되고 압축되고, 변화된 텍스트로 '자신이 살며 보고 들었다'고 생각했거나 상상했던 것을 추가하려는 의도도 첨가되어 있다. 그래서 새로이 만나게 된 세계의 묘사나 서술을 통해 자신의 문화와 유사한 것뿐 아니라 자신과 다른 것(O Diferente)을 동시에 발견하고 싶어하는 독자들의 기대(Expectativa)에 부응하고자 끊임없이 담론에 참여하고, 새로운 이미지를 독자들에게 전달하며 미지의 세계로 이끌고 있는 화자를 발견할 수가 있다.

2) 이국주의(Exotismo)

16세기 포르투갈인들이 했던 여행은 새로운 세계, 미지의 세계에서 모험이었다. 그리고 이 세계는 그 실체를 직접 겪지 못한 독자들을 대상으로 한 글로 옮겨지면서 환상적 인 이미지를 담게 된다. 그러나 이 환상적 이미지는 어떠한 규칙 없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16세기이전의 유럽 관습, 즉 과거의 관습(Convenções)을 따르고 있다. 다시 말해 과거의 눈으로 새로운 것을 발견하고, 과거의 관습을 존중하며 자신들이 만난 새로운 세계를 묘사하고 표현하고 있다[30]. 이 과거의 관습의 하나가 이국주의(Exotismo)로, 이국주의를 사용하는 것은 해양여행문학의 또 다른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이국주의는 그러나 수많은 해양여행문학에서 단순한 과거의 관습을 추종하는 것뿐만 아니라 독자들에 대한 호소기능을 강조하는 텍스트 전략으로 사용되고 있다. 다시 말해, 자신이 읽고 있는 텍스트를 수용하는 데 있어 독자의 기대치를 보장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해양여행문학 텍스트의 화자는 진정한 보고자로서 나타나며, 이국주의는 텍스트형성에 있어 중요한 요소로서 작용하고 있다.

여행객으로서, 또는 독자로서는 결코 생각할 수도, 상상할 수도 없는

30) Raffaella D'Intino, Op. cit., p. XXXII.

새로운 현실을 직면하고 있기에 이국주의는 당연한 것인지 모른다. 이 이국주의에 사용되고 있는 Exotema로서 우리는 성대한 종교의식, 화려한 행렬, 장대한 리셉션, 거대한 건물, 호화로운 의복과 장신구 등을 들 수 있다. 예를 들어 등장인물들은 평범하지 않고, 일상적인 사건들은 예기치 않은 형태로 발전하며, 동양의 풍물, 즉 도시, 궁전, 동상과 같은 사물들은 일상에서 쉽게 만나 볼 수 없는 기이하거나 뛰어난 것으로 묘사되고 있다. 또한 동양의 조직과 종교는 매우 성대하게 묘사되는 등 여러 다양한 Exotema는 유럽과는 상이한 풍습을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한 담론의 장치로서 사용되고 있다. 그 결과 동양 세계는 유럽독자들이 당시뿐만 아니라 현재 알고 있는 것과는 매우 상이하게 묘사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사실과는 전혀 다른 허구 세계로까지 발전하게 되는 것이다.

이국주의라는 문학적 장치는 또한 텍스트의 화자의 선택에 의해 긍정적인 측면 또는 부정적인 측면을 의식적으로 부각시키거나, 감각에 호소하는 기법을 사용하면서 독자들에 대한 효과를 극대화시키기도 한다.[31] 이러한 이국주의에서 중요한 점은 어떻게 타자(O Outro)가 담론 속에서 그리고 담론에 의해서 드러나느냐 하는 것으로, 포르투갈어를 비롯한 서양어에서 쉽게 표현할 수 없는 타자를 이해하기 위해 사용되는 수단으로 대화체나 1인칭 화법, 또는 편지의 인용과 종교나 가족 의례에서의 인사방법의 묘사 등을 통해 이국주의를 보여주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해양여행문학의 수많은 작품에서 이국주의는 있는 그대로의 실제, 아니면 적어도 그럴 것같이 보여지기 위한 상징적 수단으로 사용되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그러나 지나친 이국주의로 인해 그 진실성이 의문시될 수도 있기에 해양문학 텍스트는 독자들이 그 내용을 수용할 수 있도록 '본다(Ver)' 라는 또 다른 보조 장치를 사용하고 있다.

---

31) J. D. Pinto Correia, Op. cit, p. 68.

3) 본다(Ver)

일반적으로 당시 동양에서 여행을 했던 포르투갈인들은 자신이 접한 새로운 현실 앞에서 모든 것을 관찰하려고 노력하고, 자신의 눈으로 본 새로운 것(O Novo)을 묘사하려고 시도했다. 그 결과물인 여행 기록들은 이들이 다녔던 새로운 세계의 이미지를 제공하였지만, 새로운 세계를 전혀 알지 못한 사람들에게 있어서 글을 통해 읽은 모든 것을 믿기가 쉽지 않았을 것이며, 나아가 글의 내용을 의심할 수도 있었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수많은 해양여행문학 담론에서 자신의 글이 언급하고 있는 상황을 쉽게 믿지 못하는 독자들이 갖게 되는 오해나 무관심 또는 무지를 해소할 뿐 아니라, 독자의 관심을 불러일으키려고 애쓰고 있는 화자를 쉽게 만나 볼 수 있다. 다시 말해 실제 접하지 못한 사람들이 자신의 글을 읽고 판단하기에 담론의 진실성(Verdade Narrativa)에 대한 화자의 우려를 쉽게 만나 볼 수 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해양여행문학의 화자는 '내가 본(Eu vi)'이란 표현을 통한 시각적 기능을 여행담론에서 활용하며, 독자들에게 모든 것을 '자신이 직접 보았다'는 증인(Testemunho de Vista)으로 나서고 있다. Luís Graça는 이에 대해 "시각적 기능은 서술하고 있는 사실의 진실성을 보장하고 있다"[32]라고 지적하고 있는데, 대부분의 해양여행문학 담론에서 '본다(Ver)'라는 표현은 실제 우리가 쉽게 만나볼 수 있는 것으로 이국주의와 더불어 여행 담론의 또 다른 중요한 장치라고 할 수 있다.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이미 언급했듯이 현지에 있어 보지 않은 독자들이 텍스트를 쉽게 이해하고 공감하기 위해서이다. 그러나 단순히 이해를 위한 것이라고는 할 수 없다. '본다'라는 표현은 이해뿐만 아니라 생생한 현장감과 더불어 독자의 관심을 불러일

32) Luís Graça, *A Visão do Oriente na Literatura Portuguesa de Viagens: Os Viajantes Portugueses e os Itinerários Terrestres(1560-1670)*, Lisboa, IN-CM, 1983, p. 52.

으키려고 사용되었을 것이다. 다시 말해, 여행객으로서 '내가 본'이란 표현은 그 지역에 있지 않은 독자들에게 진실성을 장담하는 것 뿐 만 아니라, 생생한 느낌을 주기 위한 것이고, 동시에 서술하고 있는 것에 대한 독자들의 이해를 도우려고 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시각적 증언은 계속적으로 반복되고 있을 뿐 아니라 이국주의와 같이 지나칠 정도로 상세하게 기록하거나, 자신이 접한 세계를 화려하거나 아름답게 또는 거대하게 묘사하는 등 의도적인 강조나 생략을 병행하는 장치를 통해 담론의 진실성뿐만 아니라 독자의 기대를 충족하려고 하고 있다.

4) 시각(O Olhar)

'본다'라는 장치와 더불어 또 다른 주요한 시각적 장치는 쳐다보는 행위, 다시 말해 '보는 시각(O Olhar)'을 들 수 있다. "여행은 쳐다보는 행위와 불가분의 관계가 있으며, 특정 시간과 공간의 경험은 다양한 방법으로 표현된다."[33]고 지적하듯이 어는 한 지역을 여행하는 사람은 자신의 시선을 통하여 만나게 된 사물을 관찰하게 된다. 자신이 본 것을 아무리 사실적으로 표현할지라도 보는 시각에 따라 그 결과는 조금씩 다르게 나타난다. 이러한 측면에서 '시각(O Olhar)'은 해양여행문학을 이해하는 데 있어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해양여행문학 초기 작품들은 주관적인 평가를 배제하고 가능한 한 있는 그대로 새로운 세계에 대한 정보를 전달하려 했다. 그러나 객관적인 정보를 전하려 했던 초기와는 달리 시간이 흘러감에 따라 자신들이 만난 새로운 세계에 대한 가치, 즉 주관적인 가치를 부여하기 시작한다. 그 결과 이국의 견문을 통한 문화적 충격 내지는 새로움에 대한 동경 등이 묘사되기 시작하며, 있는 그대로 본 현실에 대한 이미지가 아니라 '자신의 시각'을 통해 형성된 이미지를 제공해주고 있다. 즉 자신들이 본 사물

33) Sérgio Cardoso, "O Olhar Viajante (Do Etnólogo)" in *O Olhar*, São Paulo, Editora Schawarcz Ltda., 1988, p. 358.

을 있는 그대로 묘사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유럽인의 시각을 바탕으로, 유럽이란 기준에 의해 다시 재조명하고 있다. 그 증거가 '본다'라는 표현과 더불어 수많은 해양여행문학에서 쉽게 만날 수 있는 '우리(Nós)'나 ' 우리의(Nosso)'라는 표현이다.

'우리'라는 표현은 새로운 세계를 쳐다보는 시각, 즉 유럽인의 시선과 시각을 암시하고 있다. 새로운 현실은 있는 그대로 보여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유럽이라는 척도에 비추어지고 있다. 다시 말해 관찰점이 자신들이 속한 유럽사회와 유럽문명이 되고, 이를 바탕으로 동양이 재해석되고 있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초기 해양여행문학 작품에서는 단순한 '여행자의 시각'으로 가능한 한 모든 것을 보려하고, 또한 이를 충실히 기록하려는 화자를 만나게 되지만, 시간이 흐름에 따라 '유럽인의 시각'을 점점 드러내는 또 다른 성격의 화자를 만나게 된다. 이 여행객과 유럽인이라는 두 화자의 시각은 '상이와 비교' 또는 '대조와 대비'라는 규칙으로 발전하며, 동양의 풍습과 문화를 자신이 속한 유럽이란 모델에 비추어 보고 있는 것이다.

5) 거울로서의 동양(O Oriente como Espelho)

해양여행문학에서 자신의 시각을 통해 본 동양은 서양에 대한 단순한 대조, 대비가 아니라 동양이 가지고 있는 상이하고 이질적이면서도 독특한 문화에 대한 이해, 더 나아가 동양문명이 가지고있는 우수한 면을 보고자 하는 장치로서 사용되고 있다. 즉 관찰의 대상인 동양은 또 다른 관찰의 주체가 되면서 끊임없는 상호 교류를 통하여 서로를 인지하고, 서로를 발견하는 장치, 바로 António J. Saraiva가 "동양문명은 거울로써 사용되었다. 그리고 또한 대조로서 이용되었다."[34]고 지적하고 있듯 동양은 자신을 비추어 보는 거울로서 사용되고 있다. 실제 당시의 해양여

34) António José Saraiva, *Para a História da Cultura em Portugal*, Vol. II., Lisboa, Liv. Bertrand, 1984, p. 102.

행문학, 특히 동양에서 선교활동을 하고 있었던 신부들의 남긴 텍스트에서 자기 자신을 조명하는 거울로서의 동양의 이미지는 쉽게 만나 볼 수 있다. 신부들은 동양이라는 거울을 통해 비추어지는 자신이 속한 세계의 모순, 즉 타락해 가는 서구 기독교문명을 비추어보고, 동양에서는 이와는 대조적으로 이상적인 사회를 발견하려 하고 있다. 이렇게 "자신들이 속한 유럽에 대한 평가절하와 자신들이 접한 동양사회에 대한 평가절상을 강조하는 경향"[35]은 이들에 의해 쓰여진 대부분의 텍스트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공통된 특징이다. 그 대표적인 예가 중국의 이미지로, 대부분의 해양여행문학에서 중국은 올바른 통치자에 의해 지배되는 정의로운 국가의 유형으로 묘사되고 있는 반면, 유럽세계는 이상적인 동양과 대조되어 정의가 존재하지 않는, 혼란스럽고 모순된 세계로 그려지고 있다.

그러나 이들의 눈에 비추어진 이상적인 동양세계는 있는 그대로 보여진 것도 아니고, 또 동양의 실제 현실과 부합되었으리라 생각할 수는 없다. 다만 당시 종교개혁과 이에 대한 카톨릭교회의 반발로 인해 유럽이 매우 혼란스러웠고, 물질만능주의와 이에 따른 부정, 부패 등으로 인해 유럽사회가 혼탁해졌기 때문에 새로이 만난 동양은 자신을 비추어 보는 장치, 즉 거울로서 작용했을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잃어버린 낙원(O Paraíso Perdido)', 즉 유럽세계의 대안으로서 나타나게 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렇게 이상적인 세계로 동양의 이미지가 형성된 데는 또 다른 이유를 들 수 있다. 당시 그들이 만난 동양세계는 상당히 뛰어나고 풍부한 문명이었다. 실제 동양을 알기 전에 자신들이 접한 새로운 세계인 아프리카나 아메리카의 문명과는 비교해 볼 때 동양문명은 훨씬 우수하고 뛰어날 뿐 아니라, 자신들이 속한 서양과 매우 상이하지만 뒤떨어지지 않는 문명이었다. 이런 현실에 직면한 예수회 신부들은 당연히 놀라움을

35) Luís F. Barreto, *Portugal, Mensageiro do Mundo Renascentista,* Lisboa, Quetzel Ed., 1988, p. 108.

금할 수가 없었을 것이다. 이러한 그들의 놀라움은 유럽에 매년 보낸 보고서한에 확실히 드러나고 있다. 특히 다른 지역보다 중국은 Álvaro Machado가 "동양은 자신이 속한 퇴폐하고 타락한 제국주의와 반대되는 뛰어난 문명을 가진 중국으로 대표되고 있는 것이다."[36] 라고 지적하고 있듯이 그 영토의 광활함이나 풍습, 정치, 문화, 사회구조 등 전체에 걸쳐 훌륭한 나라로 묘사되고 있을 뿐 아니라, 유럽사회가 본받을 만한 이상적인 국가로 소개하고 있다.

이렇게 해양여행문학에서 있는 그대로의 중국이 아니라 풍요로운 부가 존재하는 나라, 나아가 가장 이상적인 정치체제를 갖춘 국가, 도덕철학에 의해 통치되는 무한한 지혜의 나라로 인식되고 허구와 환상이 어우러진 낙원으로 묘사되고 있는 이유는 타락해가고 있는 서구 기독교 문명을 비판하고 이에 대한 대안을 추구하려 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동양은 하나의 거울로서, 이 동양이라는 거울은 자신이 속한 세계를 보고, 이와 대조되는 새로운 세계를 보기 위한 장치, 즉 자신의 모순을 발견하고 그 대안을 찾을 수 있는 장치로 사용되고 있다. 타락한 유럽과 대조되어 비추어진 정의로운 중국이란 거울의 이미지는 중국의 실체를 점차 접하게되면서도 사라지지 않고 오랫동안 지속되었다는 사실은 이를 잘 보여주고 있다.

Ⅳ. 결 론

포르투갈의 '해양여행문학'은 진정한 의미의 하나의 세계가 되는 과정에 대한 생생한 증인이다. 비록 17세기에 들어서 포르투갈의 동양제국은 서서히 무너지기 시작하였지만 포르투갈인들이 동양에서 겪었던 수많은 경험은 동양의 현실을 알려주는 해양여행문학으로 발전하게 된다. 선교

36) Álvaro M. Machado, Op. cit., p. 15.

나 교역을 주목적으로 하고 있기에 이러한 해양여행문학 작품들은 무엇보다 정보기능을 수행하려고 했다. 특히 초기에는 항해, 교역 그리고 정복이라는 기본적 조건과 관련된 실용주의를 표방하고 있기에 문학적 체취는 옅은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가장 시급했던 동양에 대한 기초적인 정보가 수집된 이후 쓰여진 기록들은 유럽의 관점에서 이국을 바라본 풍물기로, 단순한 보고서나 여행 담론이 아니라 자신들이 접한 동양의 사회 관습, 정치제도, 그리고 종교, 문화에 대해 유럽의 시각을 바탕으로 재해석하고 있으며, 뛰어난 문학적 형상화를 통해 해양여행문학이란 새로운 장르로 발전했다.

'새로운 세계(Novo Universo)'를 다루고 있는 해양여행문학은 각각의 작가들의 교육정도, 기질, 감정, 그리고 그들이 행한 여행의 목적과 성격에 따라 다를 것이며 문학적 가치도 마찬가지 일 것이다. 그러나 우리가 주시해야 할 점은 정보전달이라는 목적 하에 다른 인종과 상이한 문화를 상상과 환상을 배제한 채 객관적으로 묘사, 서술하려하고 있지만, 단순히 정보를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세계를 이해하려고 하고 있다는 점이다. 다시 말해 이국적인 새로운 현실을 인지하는 방법으로서 유럽인의 시각을 바탕으로 비교를 하고 있는 동시에, 자신이 속한 유럽 세계를 동양이란 거울에 비추어 재조명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포르투갈 르네상스시기의 이상향으로서의 중국 이미지는 매우 흥미로운 주제라고 할 수 있다.

15세기에서 17세기까지 이루어졌던 포르투갈의 해양진출에 관한 연구는 현재 상당히 이루어지고 있으나 너무나 광범위하고 복잡한 소재이기에 아직도 연구해야 할 과제는 많이 남아있다. 이를 위해 새로운 방법이나 이론이 세워져야 할 것이고, 이미 이루어진 연구를 기반으로 좀 더 체계화된 문헌분석이나 역사적 연구도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또한 아직도 덜 알려진 작품에 대한 분석은 '해양진출'이라는 대주제와 관련된 문학 작품 전체에 대한 확실한 평가를 하기 위해 선행되어야 할 작업이다. 그럼으로써 오랫동안 서로 떨어져 있고 잘 알지 못했던 두 세계의 만남

에 대한 생생한 증인인 포르투갈 해양여행문학에 대한 정당한 평가가 이루질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Fontes

Castro, D. João, *Roteiros de D. J. de Castro*, Lisboa, A. F. Costa, 1939-40.

Cortesão, Armando, *A Suma Oriental de Tomé Pires e o Livro de Francisco Rodrigues*, Coimbra, Acta Universitatis Conimbrigensis, 1978.

Cruz, Fr. Gaspar, *Tractado das Cousas da China*, Barcelos, Portucalense Ed., 1937.

Magalhães, Pe. Gabriel de., *Nova Relação da China*, Macau, Fundação Macau, 1997.

Pereira, Galiote, *Algumas Cousas Sabidas da China*, ed. de Rui M. Loureiro, Lisboa, CNCDP e ME, 1992.

Pinto, Fernão Mendes, *Peregrinação,* 5 Vols., Lisboa, Sá da Costa, 1981.

Polo, Marco, *O Livro de Marco Polo*, ed. de Francisco Maria Esteves Pereira, Lisboa, Biblioteca Nacional, 1922.

Semedo, Pe. Álvaro, *Relação da Grande Monarquia da China*, trad. de Luís Gonzaga Gomes, Macau, DSEJ & Fundação Macau, 1994.

Velho, Álvaro, *Relação da Viagem de Vasco da Gama,* ed. de Luís de Albuquerque, Lisboa, CNCDP/ME, 1989.

Algumas Cartas da Índia Portuguesa no Tempo D. João de Castro I,

II, org. de Luís de Albuquerque, Lisboa, Alfa, 1989.

Cartas de D. João de Castro, org. de Luís de Albuquerque, Lisboa, Alfa, 1989.

De Longe a China 1, ed, de Carlos P. Santos e O. Neves, Macau, ICM, 1988.

Enformação das Cousas da China, ed. Rafaella D'Intino, Lisboa, IN-CM, 1989

História Trágico-Marítima, 2 Vols., Lisboa, Europa-América, s.d.

Grandes Viagens Marítimas, org. de Luís de Albuquerque, Lisboa, Alfa, 1989.

Literatura(A) de Viagens nos Séculos XVI e XVII, Lisboa, Comunicação, 1985.

Naufrágios, Viagens, Fantasias e Batalhas, Lisboa, IN-CM, 1980.

Santa Maria da Barca: Três Testemunhos para um Naufrágio, Intrd. de Giulia Lanciani, IN-CM, Lisboa, 1983.

Estudos

Andrade, António Alberto Banha de, *Mundos Novos do Mundo. Panorama da Difusão, pela Europa, de Notícias dos Descobrimentos Geográficos Portugueses*, 2 Vols., Lisboa, JIU, 1972.

Barreto, Luís Filipe, *Portugal. Mensageiro do Mundo Renascentisa*, Lisboa, Quetzal Editores, 1988.

_____, "Introdução à Peregrinação", in *A Abertura do Mundo - Estudos de História dos Descobrimentos Europeus*, Lisboa, Editorial Presença, 1986.

_____, *Os Descobrimentos e a Ordem do Saber*, Lisboa, Gradiva,

1987.

Boxer. C. R., *O Império Colonial Português (1415-1825)*, Lisboa, Edições 70, 1981.

Cardoso, Sérgio "O Olhar Viajante (Do Etnólogo)" in *O Olhar*, São Paulo, Editora Schawarcz Ltda., 1988.

Cidade, Hernani, *A Literatura Portuguesa e A Expansão Ultramarina*, 2 Vols., Coimbra, Arménio Amado, Editor, Sucessor, 1963/64.

Correia, J. David Pinto, "Introdução" in *Peregrinação,* Lisboa, Ed. Comunicação, 1979.

Cristóvão, Fernando(coord), *Condicionantes Culturais da Literatura de Viagens,* Lisboa, Ed. Cosmos, 1999.

D'Intino, Rafaella, "Introdução" in *Enformação das Cousas da China*, Lisboa, IN-CM, 1989.

Garcia, José Manuel, *Ao Encontro dos Descobrimentos. Temas de História da Expansão*, Lisboa, Presença, 1994.

Graça, Luís, *A Visão do Oriente na Literatura Portuguesa de Viagens: Os Viajantes Portugueses e Os Itinerários Terrestres(1560-1670)*, Lisboa, IN-CM, 1983.

Lanciani, Giulia, *Relatos de Naufrágios na Literatura Portuguesa dos Séculos XVI e XVII*, Lisboa, ICP, 1979.

Lepecki, Mária L., *Autran Dourado*, São Paulo, Guíron/MEC, 1976.

Machado, Álvaro Manuel, *O Mito do Oriente na Literatura Portuguesa*, Lisboa, ICALP, 1983.

Rocha, Andrée, *A Epistolografia em Portugal*, Lisboa, IN-CM, 1985.

Saraiva, António José, *Para a História da Cultura em Portugal, Vol II.*, Lisboa, Liv. Bertrand, 1982.

Saraiva, António José e Lopes, Óscar, *História da Literatura Portuguesa*, Porto, Porto Editora, 1996.

Vários, *O Eco dos Descobrimentos na Literatura Portuguesa,* Lisboa, Ed. Replicação, 1990.

Vários, *Actas do Seminário Ciência Náutica e Técnicas de Navegação nos Séculos XV e XVO.* Macau, ICM e CEMM, 1988.

Resumo

Um Estudo sobre a Literatura Portuguesa de Expansão Ultramarina do Século XVI

Kim, Yong-Jae

No fim do século XV, Portugal, pela primeira vez, levou seu mundo europeu ao encontro com o novo universo asiático abrindo um movimento de abertura civilizacional da Europa e, ao mesmo tempo, alargou sua fronteira além dos limites do conhecimento geográfico. Naturalmente os homens portugueses tiveram o desejo de descrever e transmitir este novo universo ao seu mundo, do qual se resultou a Literatura Portuguesa da Expansão Ultramarina. De facto, ao longo de dois séculos seguintes em que se instalaram, os Portugueses deixaram inúmeros os escritos de viagens, através dos quais o mundo asiático tem se revelado à Europa na sua mutliplicidade de facetas e na sua extensão.

Esta Literatura Portuguesa da Expansão Ultramarina, entretanto, é constituído por um conjunto de obras de caracteristcas diferenciadas, cujo único denominador é o de descrever viagens, terras e acontecimentos nos novos mundos. Realmente, as suas descrições foram várias conforme as finalidades e características das viagens que efectuaram: itinerários, cartas, roteiros, livros de bordo, relações, tratados, anuais, memórias, etc. Dado um vasto material deste campo, não nos é fácil de fazer uma divisão. Mas podemos dividí-la, primeiro, em termos temáticos, tais como 'as cartas e os relatórios' que nos da

conta dos 'novos mundos', as escritas náuticas ou as relacionadas com as aventuras marítimas e os livros sobre a história, a geografica, a lenda do Oriente. E depois, podemos fazer outra divisão em base de seu estilo, que são as descrições, a epistolografia e os livros científicos e técnicos. Baseando com estas divisões, tentamos elaborar um tipologia possível: Epistolografia, Relações de Viagem, Tratados Geográficos/ Etnográficos, Crónicas Gerais, Tratados Técnicos, Relatos de Actualidade, Biografias, Memórias Vivenciais/ Doutrinais. Entretanto, esta divisão ainda é uma proposta de refelxão a ter em conta, mas poderá contribuir algo para a perspectivação mais adequada e global num futuro próximo.

Tratando-se das escritas de viagens, podemos encontrar na Literatura Portuguesa da Expansão Ultramarina algumas características fundamentais. Primeiro, encontra-se facilmente uma prevalência da função narrativa descritiva. Segundo, a utlização do exotismo, que por sua vez, funciona como uma estratégia textual que enfatiza a funão apelativa, satisfazendo, no acto da recepão, o empenhamento da capacidade de espera do leitor. Terceiro, uma preocupação pela autenticidade das suas narrativas, manifestada pela expressão 'Ver', que se funciona como um espaço discursivo em que se reflectem as experiências pessoais vividas e as evocadas como se vividas. Quarto, o olhar, em especial, o europeu. que transporta na sua viagem e na sua escrita o seu quadro operatório de valores. Por último, a imagem do Oriente como espelho que mostra os males e defeitos da sociedade europeia.

Assim, tentamos esboçar as características e a tiopologia da Literatura Portuguesa de Expansão Ultramarina. Dado um vasto material deste campo, ainda não nos é possível fazer o trabalho como

deve ser. Portanto, este trabalho não é um ponto de chegada. Apenas é o início de uma longa jornada que pretendemos realizar num futuro próximo, querendo dar somente o primeiro passo.